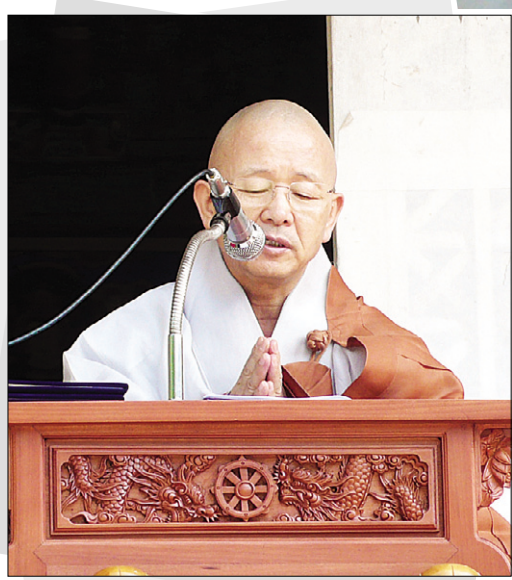


## “나라와 국민 위해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

공불련, 전통불교문화원서 제9차 합동수계법회



조계종 신도국장 정무 스님이 공무원 불자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수계증명법사인 조계종 포교원장 혜홍 스님이 오계를 살하고 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  
알약 바로기제 새바라야 모지 사  
다바야 마하...”

깊은 밤 적막한 새벽 산사를 깨우는 엽불소리다. 간절함이 묻어 있는 기도소리가 층남 공주 태화산 새벽 공기에 운치를 더한다. 11월 개원한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첫 손님으로 방문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 가족들의 서원을 발하는 기도 소리다. 다음 날 오계를 수계식에 앞서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을 약속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예사롭지 않다.

공불련은 6월 13~14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전국 300여 공무원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9차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했다. 나라일과 국민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불법을 실천하는 참 불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공무원불자들은 13일 저녁 예불을 시작으로 마곡사 주지 범용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 이종원 공주시장, 공불련 김진해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재식을 진행했다.

범용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요 정진”

라며 “초심으로 부처님 법, 자비행을 행하는 공무원이 되라”고 당부했다.

하복동 회장은 해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해 김진해 공불련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대독했다. 하 회장은 “합동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좀 더 가까이 하고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준비된 강좌와 수행정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심신을 청정히 하고 좋은 인연을 짓길 바란다”고 전했다.

입재식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 스님들의 강의가 이어졌다.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 명상치료학 교수)은 명상 강의에서 녹

록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위로했다. 스님은 “많은 직장인들은 직무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현재의 삶을 놓치고 불안, 우울, 초조한 삶을 살고 있다”며 “내 몸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에 대해 매일 3분간 관찰하며 현재의 삶, 지금이 행복한 삶을 살라”고 강조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팀장 일감 스님은 “참선 강의에서 참선과 참나, 깨달음과 행복이 가부좌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일감 스님은 “자유를 위해 하는 참선에 스스로가 얽매고 고착 돼서

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삶, 부처님의 뜻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라”며 “오계를 지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공불련 회원들의 신심은 남달랐다. 매년 공불련 수계법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하남시청 신은정(53) 불자는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 수계법회를 통해서 다지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 감사한 마음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며 신행과 어우러진 수계법회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 300여 공무원 모여 참 불자 될 것 다짐... 대다라니 독송수행 혜홍 스님 “부처님 뜻 이웃에 전하는 향기로운 삶 살라” 법문

는 안 될 것”이라며 “인식의 전환과 함께 세상과 내가 직면한 고통을 바라보고 변화를 꾀하는 삶이 진짜 참선”이라고 설명했다.

강의가 끝나자 공불련 회원들은 천년고찰 마곡사 대광보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감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신도장구대다라니 독송수행으로 신심을 북돋으며 무명의 밤을 밝혔다.

수계법회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홍 스님을 수계 증명법사로, 포교원 신도국장 정무 스님을 인례법사로 모시고 14일 마곡사 도량에서 봉행됐다. 수계식에는 전통불교문화원 사무국장 우봉 스님, 동화사 스님, 이원구 총정남도 지사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혜홍 스님은 오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 몸과 마음을 청정히

수계를 받은 300여 공무원불자들은 부처님·가르침·스님 삼보에 귀의할 것을 맹세하고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飲酒)의 오계를 지킬 것을 맹세하며 회향했다.

수계는 부처님과의 약속이지만 곧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나라와 국민과의 약속이고 곧 나와서의 약속이다. 각계의 시국선언으로 시끄러운 요즘 곁려한 수행과 깊은 불심, 나라와 국민을 위해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서원하고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공무원 불자들의 약속이 신성한 그 자체로 더욱 빛난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상불소영가천도장량장가천도식식사용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목염주 / 흑단목염주천주  
크기 : 8mm × 10mm × 12mm 55,000원  
10mm × 10mm × 12mm 65,000원  
12mm × 10mm × 12mm 85,000원  
흑단목염주는 기력이 저해하여  
반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포대화상향로  
(대) 26 × 16 × 10cm 155,000원  
원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판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백색(오장유부) 김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갑다 ◆오심, 구역,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형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듬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듬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듬(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백색(오장유부) 김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리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